샴페인 세례도 클래스가 다르다. KS MVP로 선정된 삼성 이승엽(가운데)이 우승 확정 직후 동료들이 한꺼번에 퍼붓는 샴페인 세례를 받으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잠실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트위터 @beanjjun

첫승도, 마지막 승리도 '李 한방'으로 완성됐다

이승엽은 KS 스타일

1차전 결승투런·6차전 쐐기 3타점
KS 6경기 8안타 7타점·타율 0.348
기자단 투표 71표중 47표 첫 MVP
10년 세월 무색케 한 라이언킹 포효

10년 전 스물여섯 살의 청년이었던 그는 어느새 서른여섯 살의 베테랑이 돼 있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그는 야구에 스토리를 입히는 '국민타자'였다. 10년 만에 밟은 한국시리즈(KS) 무대. '라이언킹' 이승엽(삼성)은 2012년 가을, 앞장서 어린 사자들을 이끌며 우렁차게 포효했다.

●처음과 끝을 장식한 '국민타자'

이승엽은 SK와의 KS서 시작과 끝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1차전 1회말 선제 결승 좌월2점홈런으로 팀 승리의 선봉에 섰다. 2002년 KS 6차전서 6-9로 뒤진 9회말 거짓말 같은 동점 3점홈런을 날려 팀의 첫 KS 제패에 디딤돌을 놓았던 그는 10년 만에 복귀한 KS 무대서 다시 한번 홈런 스토리를 만들었다. 등번호 36번을 달고 36세의 나이에 3636일 만의 KS 홈런을 때려냈다. 포스트시즌(PS) 개인통산 13호 홈런으로 타이론 우즈(전 두산)가 보유하고 있던 역대 가을잔치 최다홈런 타이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1일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최종 6차전. 이승엽은 뜨거운 방망이를 휘둘렀다. 4-0으로 앞선 4회초 2사 만루서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는 싹쓸이 3루타를 날렸다. 이 한방으로 6차전 승부는 물론 KS의 승부는 사실상 끝났다. 3루에 안착한 이승엽은 왼 주먹을 불끈 쥐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펼쳤다.

●아팠기에 더욱 뜨거웠다!

시리즈 내내 맹활약했지만, 4차전에서 어이없는 주루 실수로 팀을 수렁으로 밀어넣기도 했다. 4회초 무사 1·2루 찬스서 최형우의 우익수플라이 때 타구판단 미스로 3루로 달려가다 아웃되면서 선취점 기회를 날려버렸다. 곧바로 4회말 3실점하면서 팀도 패해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2연승 후 2연패. 그러나 후배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되는 위치에 있었다. 다시 방망이를 잡았다. 그리고 또박또박 안타를 만들어나갔다. 5차전서 공·수·주에 걸쳐 더 집중하면서 팀 승리에 밑거름이 됐고, 6차전서도 팀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다시 쓰는 '라이언킹의 전설'

이승엽은 KS 6경기에서 23타수 8안타로 0.348의 고타율과 7타점을 기록했다. 2루타, 3루타, 홈런도 1방씩 터뜨렸다. 기자단 투표에서 총 71표 중 47표를 받아 MVP(부상 트로피·소렌토R 승용차)에 올랐다. 일본 진출 전 9시즌 동안 활약하며 정규시즌 MVP만 무려 5차례(1997·1999·2001~2003년) 수상한 그지만 KS MVP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에 우승했는데 내가 온 뒤 우승 못했다는 소리는 듣기 싫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던 이승엽. 전설의 '라이언킹'이 2012년 가을, 다시 한번 뜨거운 전설을 토해냈다.

잠실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삼성 이승엽=10년 만에 우승해서 정말 기분이 좋다. KS 동안 경기를 응원해준 SK 팬들에게 고맙고 삼성 팬들에게 감사하다. 돌아온 첫 해 우승했고 한국시리즈 MVP도 처음 받는다. 앞으로 야구를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뜻 깊은 순간인 것 같다. 사실 4차전에서 실수를 하고 나 때문에 진 것 같아 상실감이 컸다. 그래서 5차전부터 더 집중하자고 했다. 5차전이 끝나고 완전히 진이 빠진 느낌이라서 6차전을 걱정했는데 다행히 우승해서 감사하다. WBC 대표팀서 불러준다면 영광이다.

KS 1~6차전 삼삼한 남자들

BEST 3

10점 Lions — 삼성:이승엽
상황: 1차전에선 선제 결승 2점홈런, 6차전에선 7-0으로 달아나는 쐐기 3루타!
한줄평: KS 첫 승과 마지막 승리를 책임진 한방, 1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국민타자'

9점 Lions — 삼성:장원삼
상황: 2차전 6이닝 1실점, 6차전 7이닝 9K 무실점 완벽투로 KS 2승
한줄평: 페넌트레이스 다승왕, KS도 다승왕 등극!

9점 Lions — 삼성:윤성환
상황: KS 2경기 선발 11.1이닝 2실점으로 2승
한줄평: 1차전 기선제압 이어 승부처 5차전도 역투, 최고의 KS 1선발

VS

WORST 3

2점 W — SK:마리오
상황: 2차전 만루포 허용 이어 배수진 친 6차전도 3.1이닝 3실점으로 패전
한줄평: '버섯'을 먹지 못해서 일까? '슈퍼' 아닌 '미니미'가 된 마리오

3점 W — SK:박정권
상황: 5차전까지 17타수 2안타 부진, 6차전도 3타수 무안타로 무기력
한줄평: '미스터 옥토버'도, '미스터 노벰버'도 없었다!

3점 W — SK:이만수 감독
상황: 가장 중요한 5·6차전서 잇단 판단 미스로 흐름 내줘
한줄평: 보여준 건 덕아웃 세리머니뿐? 벤치 파워는 안드로메다로~

※점수는 10점 만점

부상병 권오준 "내 몫까지 던져준 동료들,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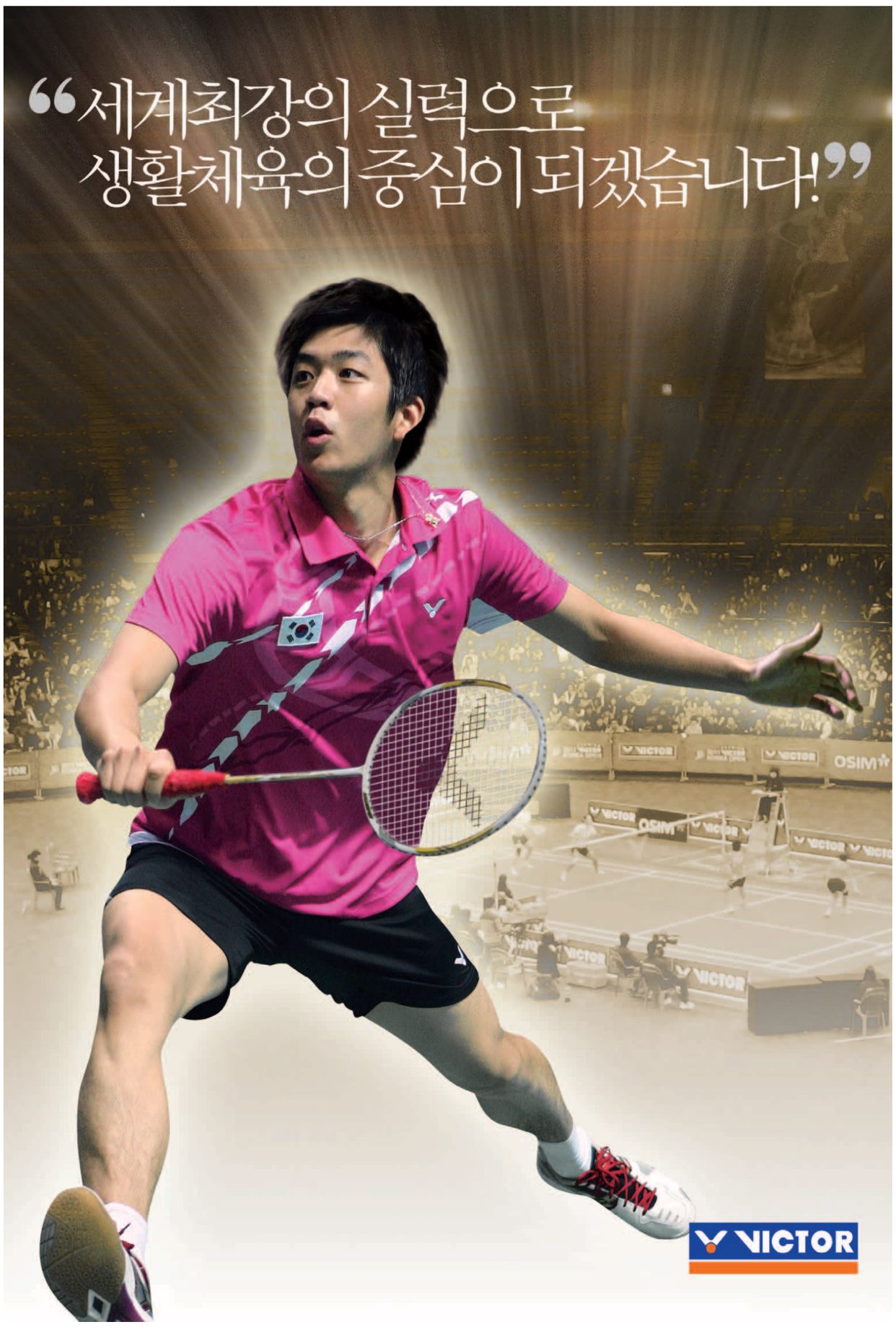
홍재현의 가을 다이어리

웬만하면 뛰려 했습니다. 아니, 뛰고 싶었습니다. 한국시리즈, 이름만으로 가슴 뛰는 그 무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고 싶었습니다. 2군으로 내려간 뒤 한 달간 어떻게든 다시 공을 던져보려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 있는 (팔꿈치)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코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코칭스태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힘들 것 같다고 코치님께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말하기 싫었지만, 이 상태로 괜히 팀에 합류했다가 폐만 끼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TV 중계로나마 매 경기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경은, 차라리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V로 경기를 보는 게 경기장에 있을 때보다 더 심장이 떨려 죽겠습니다. 그래도 믿었습니다. 특히 5차전 9회 무사 3루서 (오)승환이가 막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워낙 많이 겪어봤고, 그때마다 맞는 것보다 막을 때가 더 많았으니까 '막겠지' 싶었습니다. 되레 (안)지만이 상황(7회 무사 1·2루)이 안 좋다고 봤는데, 잘 막는 걸 보고 이기겠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권오준

물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뿌듯했지만, 3·4차전 팀이 어려울 때 (제가 있다고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겠지만)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정)현욱이 형을 필두로 똘똘 뭉친 삼성 투수진은 최강입니다. 개개인 능력이 뛰어난 건 둘째 치고,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우승을 일궈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환이, (윤)성환이가 저와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한 말인지 잘 알기에 울컥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9회말 아웃카운트 3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을 웃으며 반겨주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sd_do02